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제4기 주민참여 예산위 위원 위촉

부안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위원회는 공개모집과 관내 읍·면장 추천,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군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속의과정을 거치고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선출, 2023년 부안군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권익현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는 제도로서, 단순 민원성 예산 반영이 아닌 모든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찾는 것이므로 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고창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2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고창군 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확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취업 중개센터' 정책 논의

정읍시, 양질의 일자리 모델 발굴... 지역 내 18개 기관 머리 맞대



정읍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복지를 위해 지난 1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정읍시 취업 중개센터 기관별 협력 구축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취업 중개센터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만세 취업 중개센터장과 이현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미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박환수 시니어클럽 관장 송운용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지역 내 18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취업 중개센터의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소개로 시작했다.

이어 정읍시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 설정과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각 기관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오는 24일 정읍살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별 상호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취업 중개센터가 정읍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시민과 기업체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 정읍시 취업 중개센터 ☎ 063-639-9447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 중개센터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인 구직 연계 알선, 찾아가는 구인 구직 활동, 구직자 동행 면접, 취업박람회 개최, 산관학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등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체육진흥 조례개정, 건강한 체육 활성화 지원

고창군, 체육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고창군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보조하기 위한 '고창군 체육진흥 개정조례'가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진흥협회의'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개정법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의해 지방

체육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원 범위와 지급 기준 군수의 관리 감독 권한 등도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해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행복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11월 열린공감의 날 개최... 군민대상 수여

권익현 군수는 2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1월 열린공감의 날 행사에서



효열부문 동진면 윤석남 산업부문(췌체) 리릭스 김태영, 공익부문 부안읍 김재희, 체육부문 부안읍 장영완 등 4개 분야별 부안군민대상과 2022

년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직원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축하했다.

또한, 부안 격포항 클린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150억원 확보, 2022 부안노을 아트페스티벌과

제14회 곰소갯길 발효축제, 변산면 일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30여명의 현장평가단 실사, 계양구와 친선결연 추진, 장소를 불문하고 행사시 마다 운영되는 농·특산물 직

거래장터 등 직원들이 보여주는 능력과 발로 뛰는 열정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했다.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파동속에 농민의 목숨같은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근심이 깊어짐에 따라 이달 초부터 시작되는 공공비축 매통 시 수매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지도와 홍보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오는 7일은 겨울의 문턱인 입동으로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올해 이루어졌던 성공적인 사업들을 공유하고 진행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단풍 절정 맞은 '내장산'

정읍시, 이번 주말부터 12일 사이 절정 예상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 단풍은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남부 내륙에 소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교차가 큰데다 일조시간이 길어 붉은색이 잘 들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내장산 단풍은 올해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선명하지 않은 타지역 단풍과는 달리 다양한 수종의 단풍나무들이 빚어내는 고운 빛과 수려한 산세가 어우러져 전국 최고라는 명성이 헛말이 아님을 입증한다.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우화정과 그 옆으로 붉게 타오르는 단풍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우화정 단풍을 감상하고 조금만 걸다 보면 내장산 케이블카 정류장이 나온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내장산은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면 더욱 아름답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할 때 내장산의 숨겨진 자태와 비밀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내장산에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단단풍과 좁은 단풍, 털참단풍, 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11종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그중에서도 약 200년으로 추정되는 금선계곡의 가장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단풍명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아기 조마손처럼 작아 '해기단풍'이라 불리는 단풍나무의 빛깔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내장산의 단풍은 오는 5일부터 12일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농기센터, '약선요리 전문가' 23명 배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지난 1일 생활문화기술교육 건강향상 약선요리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생 23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참여형 실습 교육으로 농업인들과 지역주민의 생활 기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약선요리 전문가와 함께 청정 정읍의 식재료를 이용한 오감이 만족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자유하는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앞서 시는 시 홈페이지와 읍

면동을 통해 약선요리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31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과정별 약선에 대한 이론교육과 계절에 맞는 재료를 활용한 약선요리 실습으로 진행됐다.

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재료의 특성과 효능 음식궁합 등 기초 이론을 토대로 약선에 대해 익힘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보급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